

삼전닉스 · 나스닥 다변량 회귀분석

2026년 8월 14일 종가 기준 — 삼성전자 · SK하이닉스 개별 분리 및 8월 구간 별도 분석

데이터 범위: 2024-11-26 ~ 2026-08-14 (418거래일) · 미국장 동일 기준일

들어가며 — 다섯 가지 용어, 한 줄로

용어	한 줄 정의	일상 비유
회귀분석 · 추세선	흩어진 점들을 관통하는 '가장 잘 맞는 직선 하나'	여러 사람 키를 이은 평균선 긋기
R^2 (결정계수)	그 직선이 실제 움직임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(0~1)	일기예보 적중률
p-value	이 패턴이 우연일 확률. 0.05 미만이면 '진짜'	동전 10번 다 앞면일 확률
σ (표준편차) 이격	추세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. $\pm 2\sigma$ 넘으면 이례적	평균 키에서 몇 뼘 벗어났나
베타 (β)	시장이 1% 움직일 때 이 종목은 몇 % 움직이나	파도 높이에 대한 배의 흔들림

※ 다중공선성: 설명 변수들이 서로 너무 닮게 움직여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상태. 본 보고서에도 등장하며 한계로 명시합니다.

1. 삼전닉스지수 — 두 종목을 한 눈금으로

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가격 단위가 달라 나란히 두기 어렵습니다. 두 종가를 각각 데이터 시작일(2024-11-26)을 100으로 지수화한 뒤 동일 가중 평균한 값을 삼전닉스지수로 정의합니다. 8/14 지수는 **706.06**, 6/22 사상 고점(1,141.15) 대비 **-38.1%** 수준입니다.

표 1. 삼전닉스지수 주요 시점

일자	지수	삼성전자	SK하이닉스	비고
2024-11-26	100.00	58,300	177,100	데이터 시작(기준)
2026-06-22	1,141.15	356,500	2,959,000	지수 사상 고점
2026-07-24	722.00	252,500	1,781,000	직전 보고서 기준일
2026-08-14	706.06	274,500	1,667,000	본 보고서 기준일

※ 원 보고서 기준일은 2024-11-22였으나 금번 원자료는 11-26부터 시작되어 기준일을 재설정했습니다.

2. 3/31 앵커 회귀 — 무엇으로부터의 '복귀'인가

1차 이란전쟁을 이겨내고 하방이 확인된 202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론은 유지합니다. 이격도는 직전 보고서의 **-2.22 σ** 에서 **-0.99 σ** 로 축소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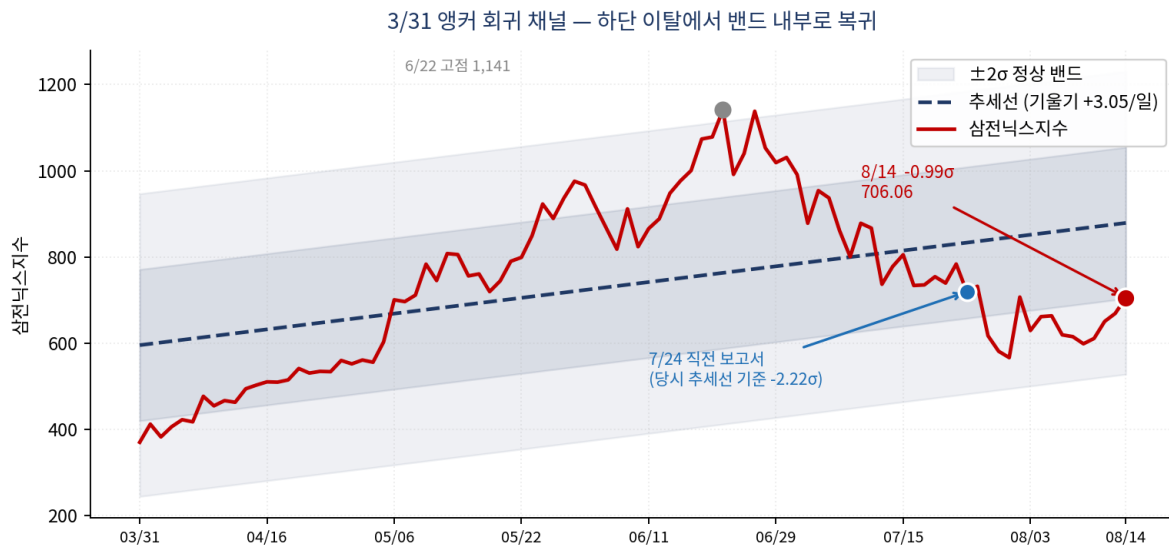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3/31 앵커 회귀 채널 — 붉은 선(지수)이 회색 밴드($\pm 2\sigma$ 정상 범위) 하단을 이탈했다가 내부로 복귀

이 '복귀'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상승추세로의 복귀가 아니라, 하방 이탈 상태에서의 회복입니다.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.

- 첫째, 지수는 여전히 추세선 아래에 있습니다. 8/14 지수 706.06은 추세선 값 879.13보다 **173포인트** 낮습니다.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뿐 중심선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.
 - 해석 : 이제 추세이탈 구간에서 추세구간으로 회복되는 “재진입단계”
 - 향후 1~2 주 이내 (8월 이내) 움직임이 매우 중요
- 둘째, 밴드 자체가 내려왔습니다. 추세선 기울기는 +6.83/일에서 **+3.05/일**로 절반 이하가 되었고, 설명력(R^2)은 0.57에서 **0.18**로 급락했습니다. 이격이 줄어든 원인의 상당 부분은 '기준선이 낮아진 것'입니다.
 - 해석 추세선의 기울기 자체가 “낮아”졌다. 이는 7월 초 기준으로 치면 과대낙폭구간이지만 7월을 지나며 추세선 기울기 자체가 낮아져 생긴 “착시”적 추세회복이라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.
- 셋째, 다만 이번엔 실제 반등도 있었습니다. 직전 보고서 때의 축소는 100% 추세선 하향의 산물이었으나, 이번에는 8/12~14 3거래일간 코스피가 **+3.68% · +3.56% · +2.42%** 급등하며 지수도 함께 올랐습니다.

정리하면 — '이례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'는 벗어났으나, '다시 오르는 추세에 올라탔다'고 말하기엔 이릅니다. R^2 0.18은 추세선 자체가 가격을 거의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이므로, 이 앵커 추세선을 근거로 방향을 판단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신뢰도가 낮습니다.

- 근본적 의문 : 5,6월이 과열추세 이탈이었다. 라는 가정을 받아들이면 현 추세는 오히려 과열이 해소된 정상추세로의 복귀라는 판단이 가능하다. 이것은 본 항목에서 추세 재인입에 대한 의문부호를 해소할 수 있는 “관점과 해석”의 차이에서 비롯한다.

- 근본적 의문2 : 5,6월의 과열추세 이탈을 해소하기 위한 과대낙폭이 7월에 이루어 졌다면 그래프에서 보듯 8/14일 금융일 장은 그 정상 추세범위로 재진입한 언더슈팅 해소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.
- 근본적 의문3 : 따라서 단기에 과거 고점인 주가지수 9000 이상, 삼전 35만원, 하이닉스 300만원은 도달이 불가하다. 다만,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.

표 2. 3/31 앵커 회귀 핵심 지표

항목	~7/24 (79일)	~8/14 (94일)	변화
기울기(선형)	+6.828/일	+3.047/일	완만해짐
R ² (설명력)	0.5718	0.1849	급락
추세선 현재값	1,032.67	879.13	하향
실제 지수	722.00	706.06	소폭 하락
현재 이격	-2.22σ	-0.99σ	이레 → 정상

3. [신설] 삼성전자 · SK하이닉스 개별 분리 (중요)

지수로 묶으면 보이지 않던 두 종목의 차이가 드러납니다. 한 줄로 요약하면 — SK하이닉스는 더 깊이 빠졌는데, 지지선은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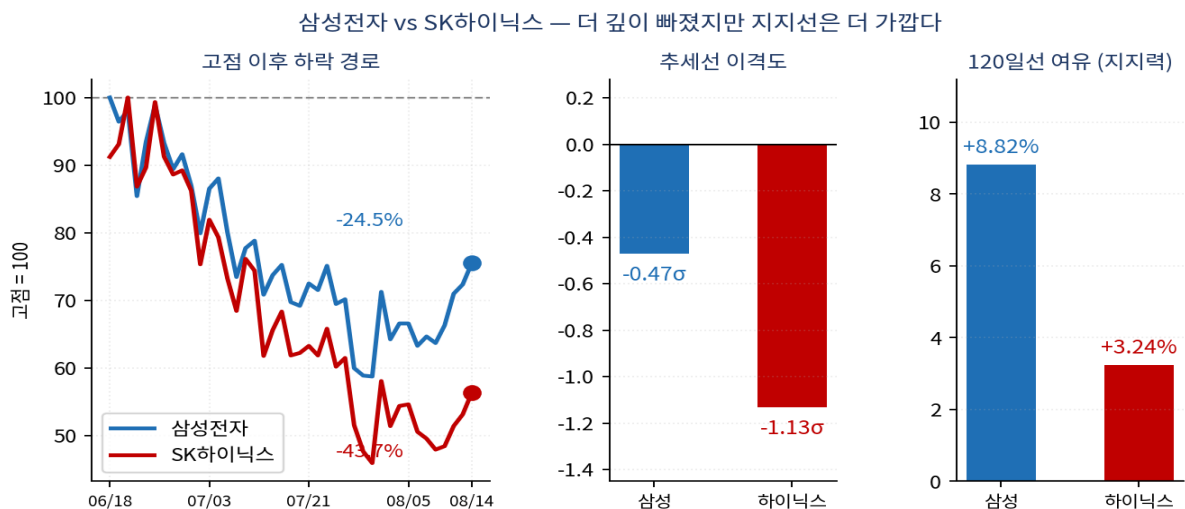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좌: 고점을 100으로 놓은 하락 경로 / 중: 추세선 이격도 / 우: 120일선까지의 여유(지지력)

왼쪽 그래프는 두 종목이 고점 이후 걸어온 길입니다. SK하이닉스(붉은 선)가 줄곧 아래에 있으며 최저점에서는 고점의 절반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. 낙폭은 삼성전자 -24.5% vs SK하이닉스 -43.7%로 약 1.8배 차이입니다.

가운데 그래프의 이격도도 같은 방향입니다(삼성 -0.47σ vs 하이닉스 -1.13σ, 2.4배 차이).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구도가 뒤집힙니다. 120일선까지의 여유는 삼성전자가 +8.82%인 반면 SK하이닉스는 +3.24%에 불과합니다. 조정이 재개되면 하이닉스가 먼저 지지선 시험대에 오릅니다. 7/24 보고서에서는 삼성전자가 +3.9%로

먼저 시험대에 섰던 구도가 한 달 만에 역전된 것입니다.

표 3. 개별 종목 핵심 지표 (3/31 앵커, 로그회귀 94거래일)

항목	삼성전자	SK하이닉스
8/14 종가	274,500원	1,667,000원
추세선 현재값	297,963원	2,280,337원
표준화 이격	-0.47 σ	-1.13 σ
고점 대비 낙폭	-24.48%	-43.66%
120일선 여유	+8.82%	+3.24%
R ² / p-value	0.139 / 2.1 $\times 10^{-4}$	0.273 / 6.8 $\times 10^{-8}$

4. 베타 3계층 — 8월 들어 두 종목이 갈라졌다

시장 민감도를 7/24까지 · 8/14까지 전체 · 8월만(8/3~8/14) 세 계층으로 나눠 산출했습니다. 앞의 두 계층은 사실상 동일하지만, 8월만 떼어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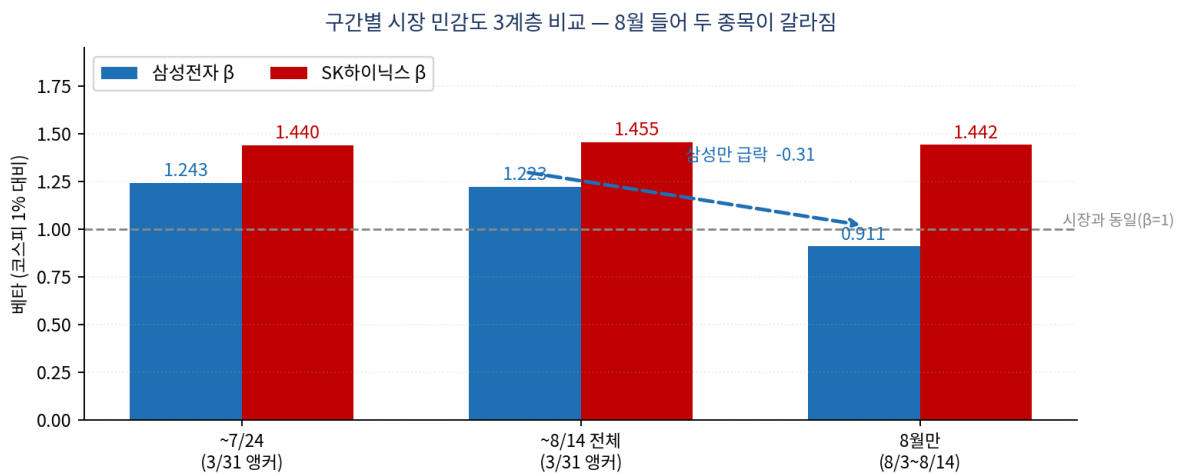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구간별 시장 민감도 3계층 — 8월 들어 삼성전자만 급락(1.223 → 0.911), SK하이닉스는 변화 없음

SK하이닉스는 세 구간 모두 **1.44** 내외로 **요지부동**입니다. 반면 삼성전자는 8월 들어 **1.223**에서 **0.911**로 급락해 처음으로 $\beta=1$ 아래로 내려갔습니다. 쉽게 말해 8월의 삼성전자는 시장보다 덜 흔들리는 종목이 되었고, 하이닉스는 여전히 시장의 1.4배로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.

다만 8월 구간은 표본이 **10거래일**에 불과해 신뢰도가 제한적입니다(삼성 $R^2=0.47$, $p=0.041$). 방향은 유의미하나 값 자체를 확정치로 쓰기에는 이릅니다.

** 3항과 4항의 요약 해석

□ 해석: 삼성전자는 “코스피 자체”라는 구도가 다시 형성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곧 코스피의 움직임이다. 외인들의 가장 중시하는 삼전의 “코스피 대표”성을 회복해가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 신호이다.

□ 해석: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달리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. 그 만큼 개별지수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“변동성 리스크”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하이닉스 거래 시 상방 기대수익률도 높지만 하방 예측 손실률도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.

표 4. 베타 3계층 비교

구간	삼성전자 β	SK하이닉스 β	표본
~7/24 (3/31 앵커)	1.243	1.440	79일
~8/14 전체 (3/31 앵커)	1.223	1.455	94일
8월만 (8/3~8/14)	0.911	1.442	10일
기준 민감도(확정치)	1.27	1.49	—

※ 직전 보고서의 '일별 베타 예측 대비 실제 괴리' 표는 일반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삭제하고, 위 3계층 요약으로 대체했습니다. 최근 5거래일 중 가장 큰 이탈은 8/10 하이닉스 -4.25%p(코스피 상승일에 홀로 -3.27% 역행)였습니다.

5. 4변수 다중회귀 — 이란전쟁 더미의 부활, 외국인의 재부상

고점(6/22) 이후 38거래일로 표본을 확장해 동일 모형(시간추세 + 외국인 순매수 + 신용잔고 + 이란전쟁 더미)을 재추정했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**이란전쟁 더미가 유의성을 회복**한 점입니다($p\ 0.172 \rightarrow \mathbf{0.0043}$).

표 5. 고점 이후 4변수 다중회귀 (n=38, 6/23~8/14)

변수	계수 (~7/24)	계수 (~8/14)	p-value	판정
t(시간추세)	-14.64	-8.67	0.0000	유의
외국인 순매수	0.0006	0.0003	0.6483	불유의
신용잔고	-7.86	-1.45	0.6099	불유의
이란전쟁 더미	-67.37	-116.32	0.0043	유의로 전환
모형 R^2	0.873	0.864	$F\ p=8.0 \times 10^{-14}$	유의

다만 외국인 변수의 '불유의' 판정은 재해석이 필요합니다. 전체 38일을 한 덩어리로 보면 불유의하지만, **8월만 따로 떼어내면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살아납니다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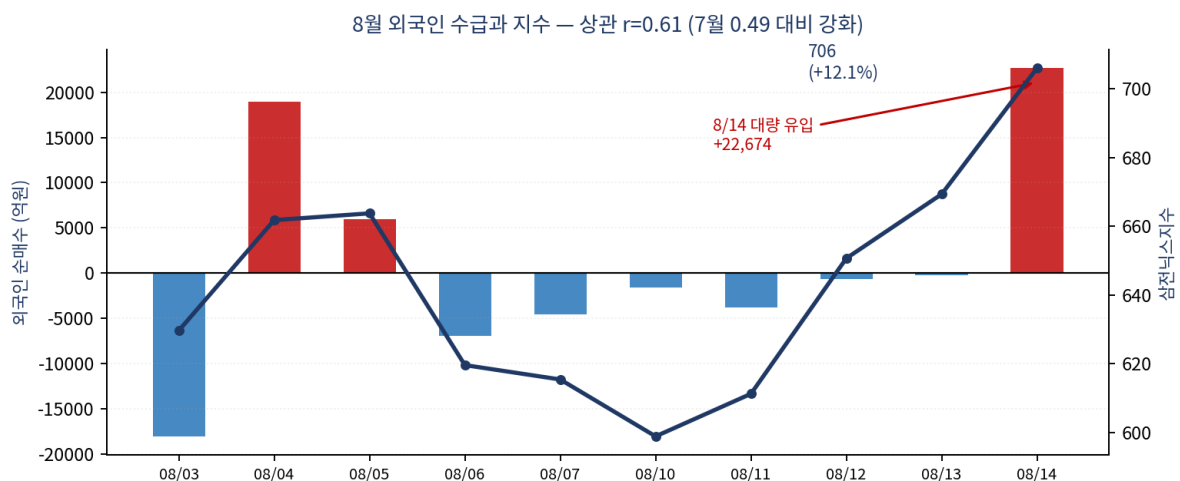


그림 4. 8월 외국인 순매수(막대)와 삼성전스지수(선) — 8/14 대량 유입과 지수 급등이 동시 발생

8월(8/3~8/14) 외국인 순매수와 지수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**r=0.61**로, 7월(r=0.49)보다 강화되었습니다. 방향도 정반대입니다 — 7월은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(+1,628억)했는데도 지수가 **-27.4%** 급락했으나, 8월은 순매수(+11,766억)와 함께 지수가 **+12.1%** 상승했습니다. 특히 8/14 하루에만 **+22,674억원**이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.

즉 다중회귀의 '불유의' 결과는 외국인 수급이 무력해서가 아니라, 7월(수급과 주가 괴리)과 8월(수급과 주가 연동)의 성격이 정반대여서 두 구간이 서로 상쇄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.

표 6. 월별 외국인 수급 성격 비교

구간	외국인 누적 순매수	지수 변화	상관계수 r
7월 (7/1~7/24)	+1,628억	-27.43%	0.49
8월 (8/3~8/14)	+11,766억	+12.13%	0.61

6. 나스닥 — 정배열 복귀와 과열 경계선

직전 보고서의 핵심 경고는 일간 **MA20/MA60 데드크로스 임박**이었습니다. 8/14 기준 이 신호는 해소되어, 종가가 **5·20·60·120일선을 모두 상회하는 정배열로 복귀**했습니다. 6/2 사상 고점(27,093.90) 대비로도 **-1.35%**에 불과한 고점권입니다.

그렇다면 어디부터가 '과열'인가.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이격도(종가÷MA20×100)의 과거 416거래일 분포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산출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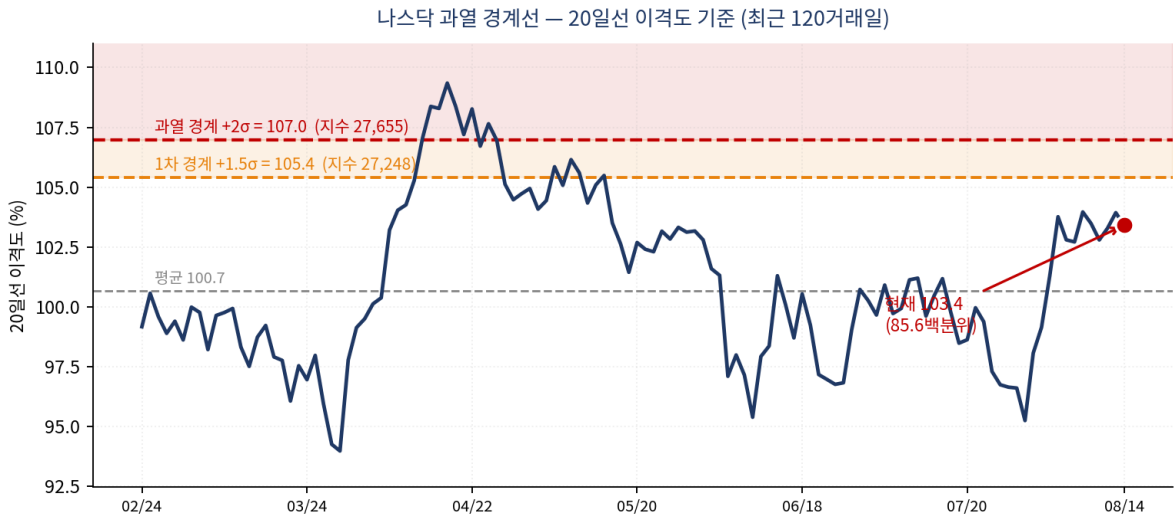


그림 5. 나스닥 20일선 이격도와 과열 경계선 — 현재 103.4(85.6백분위)로 경계선 아래

표 7. 나스닥 과열 경계선 산출

구분	이격도 기준	해당 지수	현재까지 여유
과거 평균	100.7	26,029	—
현재 (8/14)	103.4	26,729	85.6백분위
1차 경계 (+1.5σ)	105.4	27,248	+1.9%

구분	이격도 기준	해당 지수	현재까지 여유
과열 경계 (+2σ)	107.0	27,655	+3.5%

결론. 나스닥이 단기에 **27,248선(+1.9%)**을 넘어서면 1차 경계 진입, **27,655선(+3.5%)**을 상향 돌파하면 통계적 과열 구간에 들어섭니다. 27,655는 사상 고점(27,093.90)보다도 위이므로, 신고가 경신 이후 약 **2%** 더 오르는 지점이 실질적 과열 경계선입니다.

참고로 과거 이 경계선을 넘은 사례는 416거래일 중 **15건(3.6%)**뿐이며, 2025년 5월과 2026년 4월 두 차례 집중되었습니다. 두 사례 모두 경계선 진입 후 **1~2주 내 이격도가 되돌려졌습니다** — 과열 구간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

□ 해석 : 전고점인 27,190 을 재돌파하면 나스닥의 과열징후라 판단이 된다. 따라서 나스닥의 과열을 지켜봐야 하며 과열 재진입 시 재조정 of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.

7. 마이크론 비교 — 한·미 격차의 해소

동일 방법론(3/30 앵커)을 마이크론에 적용한 결과, 표준화 이격은 **-1.00σ**로 삼전닉스(**-0.98σ**)와 사실상 동일한 조정 깊이에 재수렴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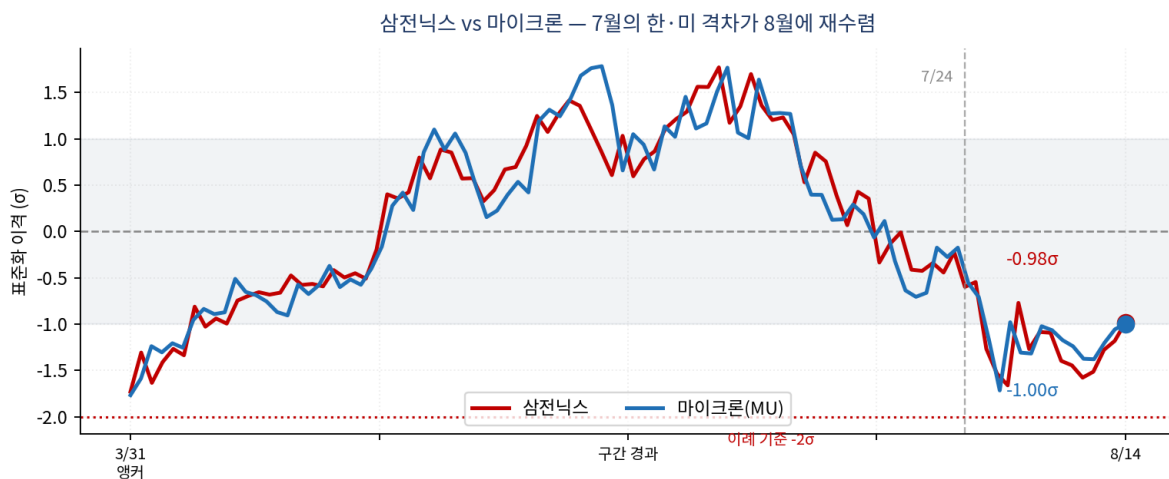


그림 6. 삼전닉스 vs 마이크론 표준화 이격 추이 — 7월 말 벌어졌던 두 선이 8월 들어 겹침

7/24 보고서에서는 MU(-1.90σ)가 삼전닉스(-2.20σ)보다 먼저 회복하는 '회복 속도의 한·미 격차'가 관찰되었습니다. 그래프에서 7/24 이후 두 선이 벌어졌다가 우측 끝에서 다시 만나는 구간이 그것입니다. 8월 들어 삼전닉스가 빠르게 따라붙으며 이 격차는 해소되었습니다.

다만 절대 낙폭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남습니다. 고점 대비 낙폭은 마이크론 **-19.9%** vs 삼전닉스 **-38.1%**로 약 2배이며, 120일선 여유도 MU가 **+35.4%**로 삼전닉스(**+5.0%**)보다 훨씬 두겁습니다. '각자의 추세선 대비'로는 같은 깊이지만, '절대 낙폭'으로는 여전히 삼전닉스가 더 크게 빠진 상태입니다.

□ 해석 : 반면 "8월의 삼성전자"만을 비교하면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유사한 회복추세를 보인다는 점 참고.

표 8. 삼성전자 vs 마이크론 핵심 비교

항목	삼성전자	마이크론(MU)
표준화 이격	-0.98 σ	-1.00 σ
고점 대비 낙폭	-38.1%	-19.9%
120일선 여유	+5.03%	+35.39%

8. 상법개정 전후 — 확증은 여전히 유보

전체 418거래일을 개정 시행일(2025-07-22) 전후로 나눠 재검정했습니다. 누적수익률 격차는 압도적이거나(+35.4% vs +434.2%), Welch t-검정은 $p=0.210$ 으로 직전($p=0.099$)보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. 원인은 명확합니다 — 개정 후 일변동성이 2.20%에서 5.03%로 2.3배 확대되어, 평균 격차가 커진 만큼 검정통계량의 표준오차도 함께 커졌기 때문입니다. '수익률은 확실히 높아졌지만 그만큼 불안정해졌다'는 그림입니다.

표 9. 상법개정 전후 구조 비교

구간	거래일	누적수익률	일평균(기하)	일변동성
개정 전 (24.11.26~25.7.21)	157	+35.4%	0.194%	2.197%
개정 후 (25.7.22~26.8.14)	261	+434.2%	0.647%	5.026%

□ 해석 : 상법개정으로 인한 구조적 성장은 분명하나 (주가지수 5000 내외의 강력한 하방저지선) 동시에 삼성전자의 실적의 급상향으로 변동성도 크게 증가했다

9. 종합 —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

- 3/31 앵커 이격 -0.99 σ 는 '이례적 하방 이탈에서의 회복'이지 '상승추세 복귀'가 아닙니다. 지수는 여전히 추세선보다 173포인트 아래이며, R^2 가 0.18로 급락해 추세선 자체의 판단 근거로서의 신뢰도가 낮아졌습니다.
- 개별 분리 결과 SK하이닉스가 더 깊이 빠졌으나(-43.7%) 지지선은 더 가깝습니다(+3.24%). 조정 재개 시 첫 시험대는 하이닉스이며, 7/24 시점(삼성이 먼저)과 역전되었습니다.
- 베타 3계층 비교에서 8월 들어 삼성전자만 0.911로 $\beta=1$ 아래로 하락했고 하이닉스는 1.44로 불변입니다. 두 종목의 시장 연동성이 8월 들어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.
 - 해석 : 삼성전자의 "단독 리밸류에이션"에 대한 추정의 근거
- 다중회귀의 외국인 '불유의'는 7월(괴리)과 8월(연동)의 상쇄 결과입니다. 8월만 보면 상관 $r=0.61$ 로 수급이 다시 주가를 끌고 있습니다. 이란전쟁 더미는 $p=0.0043$ 으로 유의성을 회복했습니다.
 - 해석 : 7월은 외국인 수급과 무관한 변동성이었으나 8월들어 외국인 수급이 변동성을 설명하고 있다. 즉,

과거 데이터로의 회귀가 가시적으로 눈에 띈다. 그러나 아직 데이터 표본이 작으므로 단정하긴 이르다.

- 나스닥 과열 경계선은 **27,655(+3.5%)**이며 1차 경계는 27,248(+1.9%)입니다. 현재 103.4(85.6백분위)로 경계선 아래이나, 신고가 경신 후 2% 구간이 실질 경계입니다.
□ 해석 : 나스닥 전고점 돌파 시 “과열”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. 따라서 나스닥의 변동성이 어떠한냐에 따라 한국시장에 악영향을 다시 미칠 여지가 있을 수 있다.
- 삼전닉스(-0.98σ)와 MU(-1.00σ)가 동일 깊이로 재수렴해 7월의 한·미 격차는 해소되었으나, 절대 낙폭 격차(-38.1% vs -19.9%)는 그대로입니다.
□ 해석 : 7월의 폭락으로 삼전닉스가 더 아랫구간으로 움직인 상태에서 다시 움직임이 동조화되고 있다. 그러나 개별종목으로 분석을 확대하면 “삼전”은 기존의 수렴추세로 되돌아 왔고, 하이닉스는 아직도 갭하락 구간에서 추종형 움직임을 보인다

이 분석이 가지는 한계

- 3/31 앵커 회귀의 R^2 가 0.18~0.24로 낮아 추세선 자체의 설명력이 제한적입니다. 이격도 수치의 해석력도 그만큼 약화됩니다.
- 8월 구간 베타(10거래일)와 외국인 상관($r=0.61$, $p=0.078$)은 표본이 짧아 방향성 참고용이며, 확정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.
- 4변수 다중회귀는 표본 38거래일로 짧고 다중공선성이 해소되지 않아 개별 계수의 인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
□ 해석 : 인과관계의 순환관계는 구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. (자기참조적 편향)
- 이란전쟁 더미의 유의성 회복은 '봉쇄 이후 구간이 그 이전보다 낮다'는 수준 차이를 포착한 것이며,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.
- 나스닥 과열 경계선은 과거 416거래일 분포에 기반한 통계적 기준으로, 시장 국면이 바뀌면 분포 자체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.
- 회귀분석은 상관관계와 추세를 보여줄 뿐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 σ 기반 이탈도는 '평균으로 회귀한다'는 가정을 전제합니다.